

## 신장이식 중 이식 신 조직검사의 임상적 중요성

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장내과<sup>1</sup>,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리과<sup>2</sup>

위지완<sup>1</sup>, 전진석<sup>1</sup>, 권순효<sup>1</sup>, 노현진<sup>1</sup>, 한동철<sup>1</sup>, 진소영<sup>2</sup>

### Clinical Significance of Implantation Biopsy in Kidney Transplantation

Jee Wan Wee<sup>1</sup>, Jin Seok Jeon<sup>1</sup>, Soon Hyo Kwon<sup>1</sup>, Hyunjin Noh<sup>1</sup>  
Dong Cheol Han<sup>1</sup>, So-Young Jin<sup>2</sup>

Department of Nephrology<sup>1</sup>, Soon Chun 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
Department of Pathology<sup>2</sup>, Soon Chun 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

**배경:** 최근 이식센터들에서 신장이식 중 이식 신 조직검사(implantation biopsy)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, implantation biopsy가 이식 신의 신기능과 예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다.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서 시행한 implantation biopsy 22예를 분석하였다.

**방법:** 본 연구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신장이식 중 이식 신 조직검사(implantation biopsy)를 시행한 22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**결과:** 총 22예의 이식 신 병리를 분석하였다. 10예(45.5%)는 정상소견을 보였으며, 6예(27.3%)의 신장에서 급성 세뇨관괴사가 있었다. 4예(18.2%)의 이식 신에서 IgA신증이 있었으며, 당뇨병성 신증 1예(4.5%)와 미만 사구체비대(diffuse glomerulomegaly) 1예(4.5%)가 있었다. 생체와 뇌사자 이식은 각각 11명으로 동등하였다. 생체이식과 사체이식의 냉허혈시간은 각각 216.9±78.4분과 65.6±21.5분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( $p < 0.001$ ). 생체이식에서 급성 세뇨관괴사는 11명중 1예(9.1%)에서 관찰되었고, 사체이식에서는 5예(45.5%)의 급성 세뇨관괴사가 관찰되어 사체이식에서 급성 세뇨관괴사가 많았다. 22명의 환자의 신이식 이후 1달째 사구체여과율을 분석하였고, implantation biopsy에서 급성 세뇨관괴사가 있었던 환자의 사구체 여과율은 평균 64.02±19.18 ml/min/1.73m<sup>2</sup>, 급성 세뇨관괴사가 없었던 환자의 사구체 여과율은 71.04±29.7 ml/min/1.73m<sup>2</sup>으로 급성 세뇨관괴사가 없었던 환자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더 높았으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.

**결론:** 이식 신 조직검사를 분석한 결과, 뇌사자 이식에서 급성 세뇨관괴사가 많았으며 급성 세뇨관괴사를 보였던 환자에서 이식 후 1달째 사구체 여과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.

**Key Words:** 신장이식, 이식 신 조직검사

Kidney transplantation, Implantation biopsy